

마이스터고 선정 탈락 광주·전남 고교 지역업체와 산학 협력 서둘러야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선정·발표한 마이스터고 9곳에 광주·전남지역 고교는 단 한군데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 협력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전문계 고교 20곳 중 평가를 거쳐 9곳이 마이스터고로 선정됐다. 마이스터고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자율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술 분야 전문가나 장인을 육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세워지는 학교다.

선정 학교는 조선분야에 거제공고와 군산기계공고, 부산자동차고(자동차), 충북반도체고(반도체장비), 함덕제철고(철강산업), 구미전자공고(전자메카트로닉스), 경북기계공고(기계), 수도권전기공고(에너지), 원주정보공고(의료기기) 등 9개 고교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광주정보고(자동차·화물), 광양 한국항만물류고(항만물류) 등 공립 전문계 고교 1곳씩을 추천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산업기업이 취약해 산업체와 연계 제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 하남산단의 중소기업들과, 전남은 하역 관련 기관 및 업체들과 산학협력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과부가 마이스터고 선정을 위해 중견기업 이상급의 산업체와 취업을 보장하는 방식의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전기공고는 한전, 부산자동차고는 르노삼성, 경북기계공고는 SJ이노텍, 군산기계공고는 현대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 거제공고는 삼성중공업 등 이밖에 선정된 학교들은 대기업과 연계를 맺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기업이 어렵다면, 산업별 연합체와의 협력도 유효할 수 있게 교과부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추가 선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보강해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스터고에 선정되면 교과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기반기금 25억 원을 비롯한 교과부·교육과정 개발, 공모지양, 교사 연수, 기자재 확충 등이 지원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청사초롱 밝힌 총장로 축제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5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를 맞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형형색색의 청사초롱이 매달렸다. '추억 & 2030'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장축제는 6일간 총장로 등 광주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대 임시이사 저지 총력전

상경 결의대회...총장 등 정치권·사학분쟁위원장에 정이사 선임 촉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선대 정이사 체제 출범을 중단하고 임시이사 체제 유지 안건을 2일 열린 사학분쟁조정 위 정회회의에 올린 가운데 조선대가 임시이사 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이날 단체로 상경, 임시이사 파견 중단 결의대회를 갖는 한편, 김대원 부총장은 정귀호 사학분쟁조정위 위원장과 만나 임시이사 파견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또 조선대 등 정이사 체제 전환을 추진해왔던 4개 대학 총장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정이사 체제 전환에 따른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선대 교수 및 직원, 학생 등 160여명은 이날 오전 교내 설립기념탑에 참배한 뒤 상경, 세종대·상지대·광운대 구성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사학분쟁조정위 앞에서 '교과부의 임시사

사 파견 음모 중단 및 사학분쟁조정 위 정회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조선대 등 4개 대학 구성원 500여명은 이날 대회에서 "교과부는 대학을 혼란으로 몰아가지 말고 당장 임시이사 파견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4개 대학이 겪는 혼란의 책임은 사학분쟁조정위에 있으며 특히 대법관 시절 상지대 김문기씨의 대학운영 비리 관련 판결에 참여했던 정귀호 위원장은 정상화 과정을 지연시켜 구제단을 돕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정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학분쟁조정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 김대원 조선대 부총장은 정귀호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조선대 구성원들은 교과부의 임시사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이사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은 "결정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교과부가 임시이사 파견을 안건으로 올리면, 그때 가서 위원들과 논의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전호총 총장 등 4개 대학 총장들은 김부겸, 안민석,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만나 정상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교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대학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사학분쟁조정위는 조선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문제를 논의한 끝에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필기자 camus@

나들이 가기 좋은 날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주	구름 조금	16~26℃
전남	구름 조금	15~25℃
전북	구름 조금	18~25℃
충청	구름 조금	15~27℃
경상	구름 조금	13~27℃
강원	구름 조금	12~27℃
제주	구름 조금	13~26℃
울릉도	구름 조금	13~26℃
독도	구름 조금	13~27℃
인천	구름 조금	12~26℃
대전	구름 조금	13~26℃
전주	구름 조금	12~26℃
대구	구름 조금	14~26℃
부산	구름 조금	12~26℃
울산	구름 조금	18~22℃

서울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0.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동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3:53 썰물 < 09:07
16:37 21:41

여수 밀물 < 11:01 썰물 < 04:22
22:50 17:01

▲해돋이 06:29 ▲해질 18:14 ▲달돋이 10:12 ▲달질 20:04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날씨						
최저/최고	14/25	15/23	15/23	12/24	13/25	13/24

장난감서 중금속·환경호르몬 검출

13개 제품 적발...6건이 중국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일 지식경제부가 국내유통 장난감 100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이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제품 중 중국산은 46.1%인 6건을 차지했고, 국내산 장난감도 4개에 달했다. 나머지 3개는 베트남산 장난감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중금속(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생산)으로 수입된 국내 K사의 '뽀로로' 관련 제품의 경우 환경호르몬인 DEHP(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0.1%보다 280배 높은 28.0%가 검출됐다.

또 밀수품으로 추정되는 한 무허가 나무퍼즐 제품(중국산)의 경우 납 성분이 허용기준치인 90ppm의 9배가 넘는 811ppm이 검출됐고, 크롬 또한 허용치인 60ppm보다 높은 72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제보청기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동경남동성사거리)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 227-9970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발의 건강은 키와 체중과 상관없이 베네슈

베네슈는 발의 건강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발입니다. 발의 구조를 완벽하게 지지하여 통풍과 보습을 유지합니다.

베네슈는 발의 건강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발입니다. 발의 구조를 완벽하게 지지하여 통풍과 보습을 유지합니다.

베네슈는 발의 건강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발입니다. 발의 구조를 완벽하게 지지하여 통풍과 보습을 유지합니다.

아이엘리시아

www.eyelit.com

성동권 판매 돌잔차, 각종 모형 및 행사용품, 오리지널 판매

아이엘리시아는 다양한 종류의 돌잔차와 모형, 행사용품을 제공합니다. 오리지널 제품을 판매하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062) 671-1199